



즉시 배포용: 2021년 1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19 백신의 배포를 가속화하기 위한 확장 백신 접종 네트워크를 발표

새로운 백신 접종 현장 네트워크는 그룹 1A에 대한 병원의 백신 접종 노력을 보완하고 그룹 1B의 자격인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개시하도록 허가

의료 종사자의 우선 순위는 유지 예정, 월요일부터 수백 명의 제공자가 예약 수락을 시작

주는 그룹 1B 필수 근로자 및 만 75세 이상의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공정성 및 사회적 공평성 의무화

대규모 조합에 다른 제공자가 만 75세 이상의 연령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룹에 대한 백신 접종을 조직하도록 요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백신 접종 배포 네트워크의 확장을 발표하여 현재 그룹 1A의 자격이 있는 뉴욕 주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가속화하고 그룹 1B에 해당하는 뉴욕 주민의 백신 접종을 시작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 전역에 걸쳐 수천 곳의 새로운 공급자와 배포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의 필수 근로자와 뉴욕 주민들은 1월 11일 월요일부터 접종 현장에서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 동안 병원에서 백신 접종률을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배포를 가속화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전역에 수천 명의 제공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 종사자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병원의 작업을 보완하고 다른 필수 근로자 및 만 75세 이상 개인의 예방 접종을 시작합니다. 연방 정부가 공급을 통제하므로, 더 많은 접종분을 계속 받을 시 뉴욕은 가능한 한 가장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공평한 방식으로 접종분을 배포할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유지하여 병원이 안전함을 유지하고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그룹 1A에 속한 210만 명의 뉴욕 주민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및 병원 근로자, 요양원 및 보조 생활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밀집 시설 거주 장애인 등이 이러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병원 내에 직접 접종 장소를 설치하여 접종 대상인 모든

사람에게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주 동안 백신 접종 속도가 증가했지만 추가적으로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우선 의료 종사자의 예방 접종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는 가운데 그룹 1B 필수 근로자 및 75 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뉴욕은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력과 더불어, 추가적인 배포 현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병원으로 사람이 몰려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했습니다. 가장 큰 그룹인 320만 명의 뉴욕 주민은 다음을 포함하여 1B 그룹으로 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70,000명의 교육 근로자
- 207,000명의 응급 요원
- 10만 명의 공공 안전 근로자
- 10만 명의 대중 교통 근로자
- 140만 명의 만 75세 이상

이 새로운 네트워크는 의사 사무실, 연방 공인 보건 센터, 카운티 보건부, 이동식 센터 및 약국을 활용하여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뉴욕 주민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것입니다. 1,200개 이상의 약국이 이미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접종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 약 500곳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주 전역의 제공자는 중앙화된 주 웹사이트를 이용 가능하게 되는 1월 11일 월요일부터 예방 접종 예약을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1월 13일 수요일에 문을 열 예정인 Jacob K Javits 컨벤션 센터(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를 처음으로 향후 몇 주 동안 주 전역에 20개의 대량 배포 현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 지정

예방 접종 네트워크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제공자들은 보건 의료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고 병원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1A(의료 종사자)에게 우선적으로 접종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 소방관 및 교육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규모 노조 단체는 가능한 한 회원들에 대한 예방 접종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그룹은 현지 보건부로부터 매주 할당량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다른 제공자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 뉴욕 주민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수는 약 140만 명으로 1B 대상자 중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뉴욕은 1B에 포함된 그룹에서 사회 공평성과 공정한 분배를 의무화하여 그룹 및 지역별로 공정한 치료와 균형있는 할당을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75세 이상의 뉴욕 주민들은 그룹 1B 내 집단의 약 45%를 차지하며, 따라서 1B 백신 공급의 45%가 이들에게 예약됩니다. 마찬가지로 만 75세 이상 뉴욕 주민의 5.9%가 주도 지구에 상주하기 때문에 만 75세 이상 뉴욕 주민에 대한 할당량의 5.9%가 주도 지구로 향하게 됩니다. 주정부는 사회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외된 지역에 배포 현장을 열 것입니다.

인력 충원

이 백신 접종 네트워크의 확립으로 인한 인력 충원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주지사는 배포 현장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적격 연수생의 풀을 확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다음 사람들을 포함하였습니다.

- 면허가 있는 실무 간호사
- 약사
- 약국 기술자
- 조산사
- 치과 의사
- 특정 치위생사
- 족병 전문의
- 응급 의료 기술자
- 자격을 갖춘 특정 학생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